

임실엔치즈 · 낙농특화 ‘탄력’

치즈테마파크 등 600여 필지 특구지정... 289억 투입 2020년까지 기반 구축

임실군이 추진 중인 임실엔치즈·낙농특화사업 특구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치즈산업과 낙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중소기업청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계획이 심의를 통과해 임실치즈마을, 임실치즈테마파크, 낙농가 등 600여 필지 총 76만5,449.2㎡가 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5건의 규제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치즈산업 및 낙농업의 확대를 비롯해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

군은 그동안 핵심사업인 치즈와 낙농산업의 특구지정을 위해 행정 절차를 꾸준히 밟아왔으며, 이번 심의 통과로 '임실치즈'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관련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군비를 비롯한 민간자본 등 2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치즈 생산기공, 치즈체험 관광 등 특화사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역특화사업이 완료되면 53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97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낙농업과 치즈산업을 통해 침체

된 농촌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특구지정으로 임실엔치즈 공동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치즈산업의 기반인 낙농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치즈의 메카로서 위상을 다지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구지정으로 임실치즈를 활용한 산업형 대표축재인 임실엔치즈축제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강화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문안순찰

순창 금과파출소

순창경찰서 금과파출소에서는 관내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안순찰에 나섰다.

독거노인 문안순찰은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요구를 듣고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직접 해결하거나 유관기관에 연계해주는 순찰활동으로 특히 돌연사, 가출 등의 위험 및 금융사기, 절도

등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설명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홍인표 소장은 "외롭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을 부모와 같이 생각하며 찾아보고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며 농촌지역에 맞는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순창 귀농인 임시거주지 '셰어하우스' 준공

군, 동계면 주월리 마을회관 앞에... 5세대 사용 가능

순창군 동계면에 귀농인 임시거주지인 셰어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18일 동계면 주월리 마을회관 앞에 귀농인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어진 셰어하우스는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고 회의장,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날 문을 연 셰어하우스는 휴건축 연구소 살림에서 폐 양곡창고를 개조 수해 만들었으며, 회의실과 주방 등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 혼자 귀농하거나 지역에 연고가 없는 귀농인들이 지역 민으로 소속감과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휴건축 연구소 살림과 군은 주로 혼자 귀농하는 청년귀농인 층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귀농인들의 임시 동거가 될 셰어하우스 준공식도 진행됐다.

준공식에는 지역 기관장들과 마을 주민 휴건축연구소 살림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해 셰어하우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황숙주 군수는 "셰어하우스는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소속감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업이다"며 "군은 앞으로 귀농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재형 실습농장, 귀농귀촌

인 임시 거주지 조성사업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과 귀농현실을 바로 알고 귀농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인 집이나 체재형가족 실습농장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8시간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귀농인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남계리에 임시거주지 4동 게스트하우스 창고를 갖춘 귀농귀촌인 임시거주 사업을 완공했으며, 구림면 월정리에 귀농인의 집은 물론 실습농장을 갖춘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650-5115) 또는 휴건축 연구소 살림(010-4006-5628)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구인규 기자



순창군, 블루베리·매실 농장 분양

28일부터 130호 홈페이지에서

순창군은 도시민들에게 블루베리 매실 분양농장 사업을 진행한다.

군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매실 분양농장은 구림면 사골길 37 소득개발사업포 일원 1.5ha 규모다.

블루베리 1,260주와 매실 40주에 대해 130호(블루베리 90, 매실40)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을 실시한다.

블루베리는 12주를 분양하며 가격은 10만원에서 15만원이다. 매실은 1주를 분양하며 가격은 3만원이다.

군은 앞으로 블루베리 매실 분양농장에 선정된 도시민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한 후 분양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양농장에 선정된 도시민들은 설명회 후 본인의 이름이 적힌 블루베리와 매실 나무를 가꾸고 수확시기가 되면 가족과 함께 수확할 수 있다.

순창 블루베리 매실농장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순창군청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brutus7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63-650-5154번으로 하면 된다.

/순창=구인규 기자

남원시, 올해 조사료사업 30억 투자

50억 생산경쟁비 절감 도모

남원시는 올해 조사료사업에 30억원 을 투자 3만톤을 생산 50억원의 생산 경쟁비 절감을 도모하며 축산(소)농가 경쟁력강화에 주력한다.

현재 남원시에는 소(원우 젖소) 3만 6000여두가 사육되고 있고 연간 조사료필요량은 10만톤 수준이며 비용 환산 190억원 정도이다.

이 중 자체 생산은 2만 5000톤(25%, 35억원)이며, 그 외 부족분은 수입건초와 볏짚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자급 조사료의 생산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을 2,500ha로 확대해 생산 자급률을 50% 수준까지 높이지도록 2017년부터 5년간 150억원을 투자하여 종자 기저재, 장려금을 지원하고, 현장 수확작업 전담 조사료경영체(법인, 농업회사) 10개 조직을 지역별로 추가 육성하여, 조사료 연간 5만톤 생산

을 통해 경쟁비 80억을 절감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기반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고기와 유제품 시장의 개방 이후 시장 점유율까지 낮아지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업,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쟁비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국내산의 안정적인 소비량을 지켜간다면 축산업은 높은 소득을 주는 농촌의 활력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회브리핑

고창군, 국비확보 추진 전략회의

고창군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우정 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2018년 국가예산확보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박 군수와 전 공무원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올해 521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군은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사업 등을 분석해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발굴을 시작해 2017년 확보대상사업 58건, 2018년 13건과 국책사업 6건을 발굴했으며 보고회를 통해 최종 확보대상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읍·고창 선거구 입후보자에게 32개 사업에 대해 총선공약사업으로 반영을 요구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도 유도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민 군수, 선제적 국비 확보 나서

심민 임실군수가 지역 현안 해결과 사회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선제적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난 18일 행정부를 방문한 심 군수는 경계지역 오지마을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임실진안상수도 연계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안전처를 찾아 청운문소재지 침수지역 해소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근로, 급경) 등 재난안전 관련 국과장과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국가예산 확보 집중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실과원소장을 중심으로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료원, 환자안전지킴이 출범

전북도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은 지난 18일 '제2회 환자안전지킴이 출범식'을 가졌다.

환자안전지킴이(Patient Safety)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15년 처음 구성되었고, 올해 선정된 28명은 근무환경에서 환자안전기준 준수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사고는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해 환자안전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임명장 수여 후 ▲환자안전지킴이 역할 ▲환자안전범 ▲환자안전범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 금년 7월 환자안전범 시행을 앞두고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활동 강화, 부서 소통 및 공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우리의료원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되기 위하여, 환자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경찰,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고창경찰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읍내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일대와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선정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주요 위반행위 특별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17일부터 수시로 상설중대(308중대)를 지원받아 읍내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사고 잦은 장소를 선정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했으며, 2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띠착용, 안전모 미착용 등 인명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규위반시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